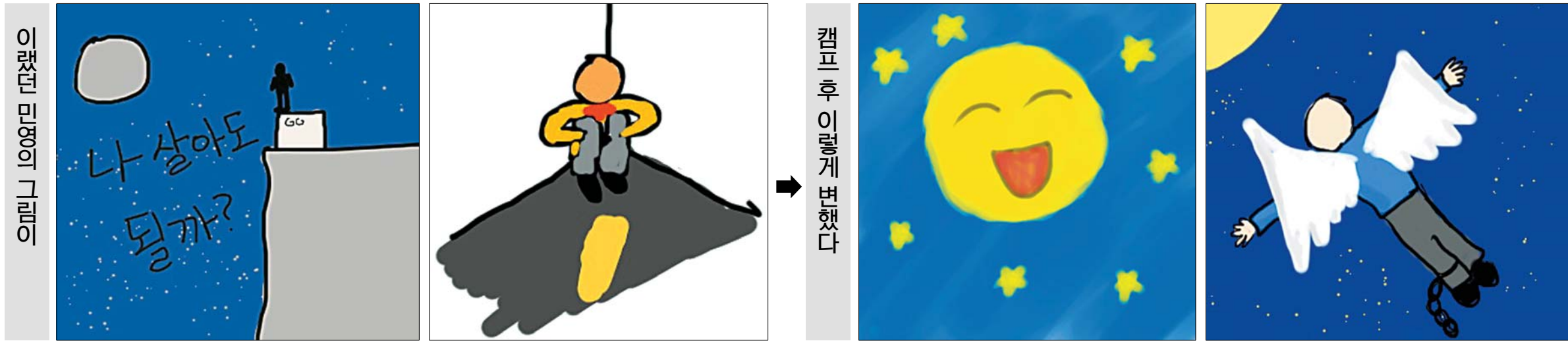


다섯 차례 자살 시도했던 민영, 캠프 그 후...

외로움에 자살을 시도했던 민영(이하 가명·19), 오토바이를 타고 사고를 쳤던 규석(18)과 단짝친구인 다혜(18·여), 공격적 성향이었던 다영(17·여), 국민일보 꿈나눔 캠프 1기 출신들이다. 민영 규석 다혜는 이후

2, 3기 캠프에 보조강사로 참가해 자신들이 학교 밖에서 겪은 생생한 일화를 들려줬다. 아이들은 신중한 결정을 주문하는 '선배들'의 경험담과 조언에 귀 기울였다.

잠에서 깨면 죽고 싶었다... 지금은? “오늘은 뭐할까”



국민일보가 연초부터 게재한 '학교 밖 아이들을 품자' 시리즈의 일환으로 마련한 꿈나눔 캠프가 시작된 지 10일로 100일이 됐다. 그동안 캠프 1기 아이들은 주변 어른들이 눈을 휘둥그레 볼 만

죽음의 뒷에서 헤어난 민영
자살 시도 이유 중 하나였던 이유없이 타인 해치고픈 마음 자존감 생긴 후 점차 사라져

동과 고민에 빠졌다고 했다. 이런 충동에 휩싸일 때는 차라리 죽고 싶었다. 그러나 자존감을 되찾고 삶의 이유가 분명해진 요즘에는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게 무엇보다 기쁘다.

몰라보게 달라진 아이들
100일전 '노랑머리'였던 아이 단정한 머리에 캠프 보조강사로 "학교 그만두면 폐인돼" 조언

취미삼아 그림을 그리고 살을 빼는 데 계산 오르내리기운동도 한다. 100일 동안 5kg 감량했다. 아버지가 출장에서 돌아오면 맛있는 음식을 시켜놓고 대화도 한다. 새벽 3시쯤 눈이 떠져 잠을 못 자는 증상은 개선되지 않았다. 다만 전에는 깨고 나면 "죽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오늘은 뭐 하지"라며 일어난다.

바쁘게 사는 아이들
100일 전 머리를 노랑색 물들이고

캠프를 찾았던 규석은 더 이상 염색을 하지 않는다. 단정하게 자른 머리 모양을 하고 2, 3기 캠프에 참가한 그는 어엿한 보조강사다. 규석은 자퇴를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웬만하면 학교를 그만두지 말아라. 그만두려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폐인이 된다"고 설득해 큰 호응을 받았다.

캠프 이전 규석은 가출을 밥 먹듯 했고 경찰서를 수시로 들락거렸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사고를 치지 않는다. 배달 아르바이트로 착실히 모은 돈으

로 예전 오토바이 사고로 지불해야 하는 합의금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다. 이달 말에는 모두 갚을 것 같다. 규석의 꿈은 '억대 연봉을 받는 유명 헤어디자이너'가 되는 것이다. 꿈을 이루기 위해 다음달부터 기술을 연마하기로 했다. "(연젠가) 경치 좋은 데 별장을 짓고 사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강사와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다닌다. 아버지와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됐다. 규석은 "(1기 캠프 때) 제가 전화로 용서를 빈 뒤

아버지가 마음을 많이 푸셨다"고 말했다. 다혜와 다영이도 일과 공부를 병행하며 바쁘게 살고 있다. 다혜는 오는 8월 검정고시를 치른다. 낙천적인 성격의 다혜는 "노는 게 좋아 공부를 많이 못 했지만 자신있다"고 말했다. 경찰서를 들락거리는 학교를 그만두어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했던 다영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준 캠프를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도경 기자 yido@kmb.co.kr

름 성장했다. 저마다 꿈을 위해 바쁜 일상을 보내며 '어른'이 돼 가고 있었다.

민영의 고백
민영은 투신, 수면제 등으로 다섯 차례나 자살을 시도했다. 부모의 이혼과 학업중단 등을 겪고 은둔형 외톨이로 고시원 생활에서 외로움을 못 견뎌 죽음을 꿈꿨다. 그는 "내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외로웠다"고 했다. 고시원 옥상 난간에서 내려와 청소년 정신건강진센터와 정신과 전문의 치료 등을 거쳐 캠프 1기로 인연을 맺었다.

민영은 "예전에 자살을 시도한 이유가 하나 더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3개월 전에는 하지 않았던 얘기다. 고시원에서 감옥에 갇힌 것처럼 지낼 때 "사람을 공격하고 싶다" "이유 없이 그냥 해치고 싶다" "내가 이 사회에서 살아도 되는 존재인가"라는 충

동과 충동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다. 눈물도 많이 흘렸다. 슬픈 장면을 봐도 눈물을 흘리는 일이 별로 없었지만 요즘에는 울보가 됐다. 그동안 스스로 '감정이 메마른 인간'이라고 생각했다. "눈물이 자주 난다. 뭔가 슬픈 장면을 보면서 눈물이 나면 내 감정이 살아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오는 8월로 예정된 검정고시 합격이 1차 목표다. 이후 대학입시에 도전한다. 심리학과에 진학해 남을 돕는 심리상담가나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 별에도 관심이 많아 천체물리학을 공부해보자고 고민 중이다. "예전엔 손도 못 댄 수학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다. 정말 뿌듯하다."

그 전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지만 캠프에서 만난 규석 다혜 다영과 자주 만나며 친해졌다. 강사의 권유로 페이스북을 시작했으며 강사와 캠프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는다.

“아이들 조금씩 마음 열며 변화 원해 귀 기울이고 지지해주는 게 어른 몫”

인터뷰 캠프 총괄한 '어나더챌스' 박진용 대표

국민일보와 함께 꿈나눔 캠프를 진행한 '어나더챌스'의 박진용(44·사진) 대표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망가진 자물쇠 취급 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자물쇠마다 열쇠가 다른데, 어른들은 한 가지 열쇠만을 고집한다는 것이다. 캠프가 끝난 뒤에도 아이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 그를 지난 8일 서울 성수동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가만히 틀어주고 지지해주고 공감해주는 게 가장 빠른 열쇠"라고 강조했다.

- 캠프 후 2주 동안 아이들을 지켜 봤다. 캠프는 성과가 있었는가.
"고맙게도 아이들이 마음을 조금 열었다. 어렵게 열린 마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강사들과 노력 중이다. 공부야 필요한 아이는 공부를 도와주고, 학교 밖에서 꿈을 찾으려는 아이는 안전하게 경험을 쌓도록 맞춤형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교사나 학부모들의 도움도 필요하다. 캠프 성과를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캠프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다만 무기력했던 아이들이 자신이 변화를 원한다는 점을 인식했다. 그 점은 성과라고 생각한다. 이제 어른들이 그 계기를 만들어줘야 할 차례다."

- 아이들을 자물쇠에 비유했다. "민회가 심정전을 얘기하며 '심정

은 바리피우는 나쁜 여자고 나중에는 애인을 죽였다고 했을 때 기성세대에 대한 분노와 실망을 봤다. 아이들마다 가진 마음의 상처와 고통은 저마다 다르다. 가정폭력, 결혼가정, 자살시도... 다들 만만치 않은 사연과 상처를 안고 있다. 그래서 마음에 채워놓은 자물쇠도 다른 모양이다. 아이들 얘기에 귀 기울이며 맞춤형으로 열쇠를 만들어야 한다. 선불리 아무거나 밀어넣으면 입구가 상해버린다."

- 향후 캠프는 어떻게 운영하나.
"앞으로는 아이들 성향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활동성향이 강한 아이들에게는 야외 활동을 위주로, 내성적인 아이들에게는 실내에서 편하게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생각이다. 도전적인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래프팅이나 '비바'(텐트 없는 야영) 등도 좋아할 것 같다."

이도경 기자

푸르지오 VS 푸르지오

푸르지오의 경쟁상대는 오직 푸르지오뿐!

4Bay 중심 혁신설계에 운양역가정, 예진까지 거느린 초역세권 프리미엄

한강신도시 2차 푸르지오

공원 초·중·고, 중심상업지구와 딱 붙은 시범단지 프리미엄

양주신도시 푸르지오

한강신도시 2차 푸르지오

김포도심에도 운양역가정, 예진, 모담산, 편이시설, 혁신평면까지- 한강신도시 프리미엄 존의 중심에서 모두 누린다

67㎡, 84㎡ 중소형 총 242세대

1577-8942

신: 한국자산신협(주) 신: 대우건설

6월 13일 동시오픈 예정

양주신도시 푸르지오

공원, 학교, 중심상업지구가 인접한 양주신도시의 중심- 시범단지의 첫 번째 브랜드 프리미엄을 누린다

58㎡ 단일 주택형 총 1,862세대

1800-0086

신: 아서아신학 신: 대우건설